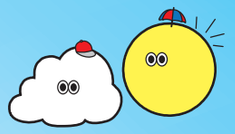
2024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활동자료집



조운동네 좋은소식

조운동네 좋은소식!

2024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활동자료집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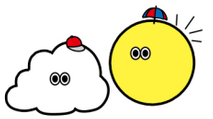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조운동네 문화가 흐르는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4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활동자료집



조운동네 종은소식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한영호입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 〈조운동네 좋은소식〉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조운동네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은 시리즈(조운위크, 상상, 틈새콘서트) 프로그램이 주로 진행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조운소양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202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문화가 숨 쉬는 조운동네'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과 유별히 추웠던 겨울의 초입을 지나 올해가 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5가지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에 해당하며, 찾아가서 머무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권역인 조운동네(요선동 · 새명동 · 옥천동 · 춘천지하도상가)는 춘천시의 주요 기능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명동상권과 전통시장, 관공서, 학교, 은행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축물 혹은 기반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은 주로 도시재생과에서 이끌어 가고, 그 외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현장센터에서 운영합니다. 2024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조운위크', '틈새콘서트', '상상 한' 시리즈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녹색교통 해커톤'이 처음 개최되었으며, 조운웰컴센터 문화행사 '웰컴 조운동네'가 새로이 운영되었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에 걸쳐 춘천시 청소년들이 직접 지하도상가 계단과 벽에 그림을 그려낸 벽화 교육 프로그램 '상상을 그리다'도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까지였던 사업 기간이 2026년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 만큼 2025년에는 권역 상인, 주민분께 보다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조운동네와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람들

안녕하세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예은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다시금 한 해의 마지막이네요. 올해도 〈조운동네 좋은소식〉과 같이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매호 준비할 때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조운동네 좋은소식〉 덕분에 조운동네의 이야기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갈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주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차

1분기

1월 월례회의	10
전시 ‘문신전 : 찬란하고 영원한’	11
틈새콘서트 시즌2	13
전시 ‘色을 짓다’	14
전시 ‘춘패크 그림전’	17
전시 ‘정원 : 지혜의 꽃을 피우다’	20
전시 ‘민화와 오디오 리엑티브 미디어 아트’	23
3월 월례회의	27

2분기

전시 ‘예뻐서, 봄’	30
‘조운동네 좋은소식 11호’ 발행	32
전시 ‘제8회 다은어린이집 그림 전시’	33
2024 조운위크 봄	35
전시 ‘제1회 이승호 개인전’	36
5월 월례회의	39
전시 ‘Abstract Time’	40
전시 ‘색에 차오르다’	43
2024 녹색교통 해커톤	47
‘조운동네 좋은소식 12호’ 발행	48
전시 ‘유영아 개인展’	49

3분기

전시 ‘지상만가展’	54
전시 ‘思因展’	57
7월 월례회의	61
전시 ‘봄시내천연염색전’	62
‘조운동네 좋은소식 13호’ 발행	65
전시 ‘2024 강원 기상기후 사진 순회 전시’	66
전시 ‘제10회 개인전-空間의 저편’	68
상상을 그리다	71
전시 ‘특종 · 추억의 사진전’	72
전시 ‘신승복 산수화전’	75

4분기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모집	80
전시 ‘우리 눈으로 본 춘천’	81
틈새콘서트 시즌3	84
‘조운동네 좋은소식 14호’ 발행	85
10월 월례회의	86
전시 ‘소양상미회 제3회 정기전’	87
전시 ‘칠보를 품은 동화 전’	88
전시 ‘제10회 예림회전’	91
웰컴 조운동네	95
공실 모집	96
‘조운동네 좋은소식 15호’ 발행	97
12월 월례회의	98
상상 한 겨울	99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100

1

- 1월 월례회의
- 전시 ‘문신전 : 찬란하고 영원한’
- 틈새콘서트 시즌2
- 전시 ‘色을 짓다’
- 전시 ‘춘패크 그림전’
- 전시 ‘정원 : 지혜의 꽃을 피우다’
- 전시 ‘민화와 오디오 리엑티브 미디어 아트’
- 3월 월례회의

24.1.17.
1월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1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틈새콘서트 시즌2, 조운위크 봄, 상상 한 봄,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상상언더그라운드
공실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24.1.16.~1.31.
전시 '문신전 : 찬란하고 영원한'

타투이스트 10인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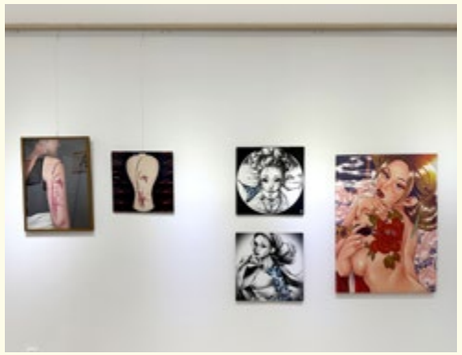
갤러리상상언더에서
타투이스트 10인의 단체전
'문신전: 찬란하고 영원한' 전시가
진행되었다.



24.1.29.~3.25.
틈새콘서트 시즌2









일상 속 특별한 20분.
월 · 수 · 금 점심 틈새 시간을 활용한
버스킹 공연 프로그램, 클래식 장르 위주의
'틈새콘서트 시즌2'가 진행되었다.



24.2.1.~2.15.
전시 ‘色을 짓다’

고은미 작가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고은미 작가의 ‘色을 짓다’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가님 개인전의 전시명이 ‘色을 짓다’인데요. 전시명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민화를 그리기 전에 바느질과 한지공예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여러 가지 색을 전하는 작업이 바느질하던 작업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색을 조합하는 게 ‘색을 짓는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전시명을 바느질하듯 색을 짓다로 정하게 되었지요.

민화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또한 민화만의 매력을 알려주신다면요?

한지공예를 하다가 어깨에 부상을 입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을 때 민화 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색감에 마음을 빼앗겼고, 한지공예를 하면서 가구 위에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8년 전에 서울로 올라가서 정식으로 큰 스승님께 사사했습니다. 민화를 보면 색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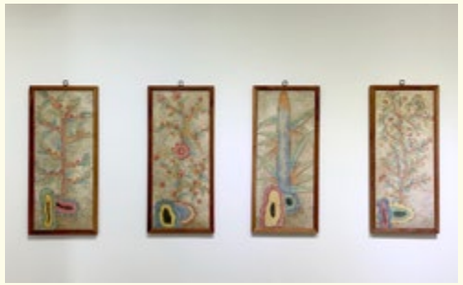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민화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 그림이며, 마음으로 보는 그림입니다. 서양화의 경우 눈으로 보는 거라 원근법, 명암 등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화는 주체가 나라서 내가 느낀 대로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점이라 위, 아래 어느 방향에서든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한 대로 보면 될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민화는 그림마다 뜻이 있어요. 그걸 알고 감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색감에서도 조금은 깊고 고급스러운 색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시대성을 갖고 늘 범고창신 하면서 현대적으로 표현해야 할 듯 싶네요.



전시회를 통해 보여주신 많은 작품 중 하나만 꼽기는 어렵겠지만, 이 작품만은 꼭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작품을 만드시면서 관련된 일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십장생도〉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가장 큰 삶의 지표는 수복, 강령, 부귀, 다남이었습니다.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를 염원했던 무형의 유산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지요.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그림이 십장생도입니다. 일화로는 큰딸이 결혼한 지 8년이 넘어서 첫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애탔지요. 개인전 준비하느라 살펴주지 못한 어미의 마음이 슬펐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손자 녀석 첫돌 잔치에 기필코 내 손으로 그린 십장생 병풍을 펼쳐놓고 잔치를 하자고 다짐하고 그렸습니다. 중간에 몸이 많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 엉엉 울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 완성하고 난 날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십장생도는 제게는 첫 손자 녀석만큼이나 값진 그림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마무리하신 후 앞으로의 작가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10년 만에 첫 개인전을 했고 올해 2차 개인전 준비를 8월에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제자님들과 함께 회원전도 계획 중이네요.

마지막으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는 어떤 특정인들이 관람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면 갤러리상상언더에서의 전시는 상상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어르신, 아이들, 학생들)에서 관람하시는 걸 보면서 예술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지요. 내년에 전시를 또 해볼 계획입니다.

24.2.18.~2.28.
전시 '춘패크 그림전'

춘천 2030 교사 디지털 드로잉 동아리 패드와 크레파스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춘천 2030 교사 디지털 드로잉 동아리 패드와
크레파스의 단체전 '춘패크 그림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패드와 크레파스 동아리의 첫 전시인데요! 먼저, 동아리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패드와 크레파스'는 춘천 지역의 2030 교사들이 모인 디지털드로잉 동아리입니다. 모두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자, 이 지역에서 살아갈 시민을 교육하는 교사들입니다.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각자의 학교 일상, 현재 마주한 교육 현장의 현실, 나아가 교육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시회를 진행하시게 되었나요?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일구어낸 공동의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책 만들기, SNS에 작품 업로드하기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떠올리다가 지역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주제나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교육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학교라는 공간을 거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개개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라 해도 관람객들의 경험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관람하면서 본인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고 웃음 짓거나, 학생일 땐 몰랐던 교사의 역할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나아가 지금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풍에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작품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작품을 만드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 중등, 보건, 특수 등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참여했는데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아보고자 병풍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교사의 책가도, 학교의 일년살이, 꿈을 담은 도자기'의 세 분야로 나누어 각자의 개성과 멋, 교사로서의 고충을 담아낸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청년 교사의 책가도'는 교사의 책장, 교실에서 사용하는 문방구와 학교 생존 필수 아이템템을 민화의 한 종류인 책가도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학교의 일년살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달마다 바뀌는 학교의 모습을 한 폭에 넣어 연속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꿈을 담은 도자기'는 도자기 속에 우리의 교사 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무늬를 넣은 작품입니다.

몇 분의 작가님들이 함께하셨나요? 또한 전시회를 준비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춘천 패드와 크레파스에는 총 22분의 작가님이 계십니다. 22분의 작가님의 의견을 조율하고 준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고 작품을 마무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두 달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전시를 진행하시면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춘천의 전시 가능한 공간을 찾아보다가 블로그를 통해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열렸던 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열려왔고, 춘천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점이 매력적이어서 이곳에서 꼭 전시를 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으로 가장 큰 점을 꼽자면, 다양한 연령층의 불특정 다수가 오고 가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과 관련이 없는, 우연히 들른 방문객도 방명록을 남겨 주신 것을 보고 '이 공간은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하구나'를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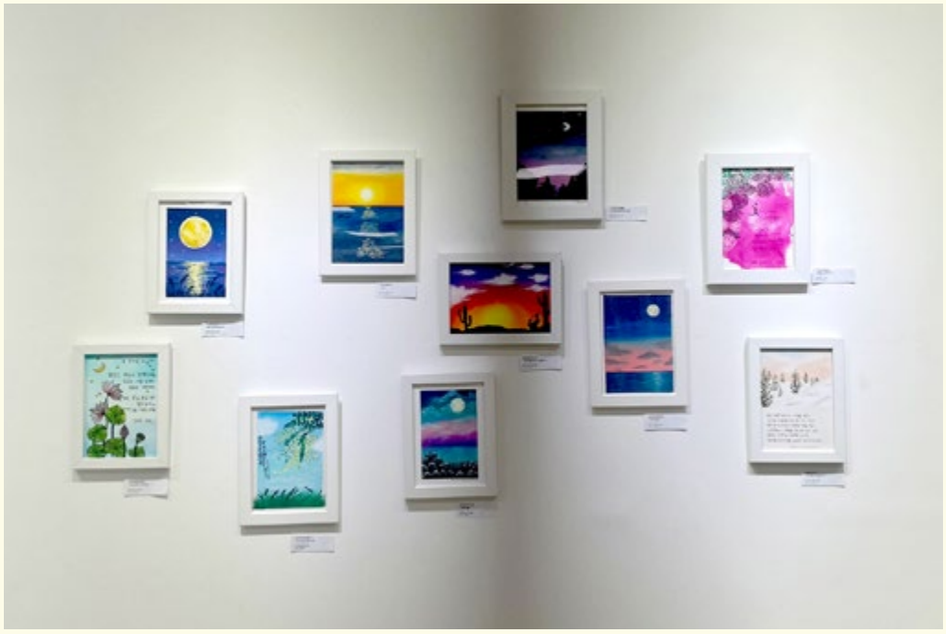


3.2.~3.15.
전시 ‘정원 : 지혜의 꽃을 피우다’

루리챌동아리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루리챌동아리의 단체전
‘정원: 지혜의 꽃을 피우다’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필사 커뮤니티 루리챌의 첫 번째 전시인데요. 모임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꿈을 그리고 쓰는 작가 루리캘리 이은희입니다. ‘루리챌’은 캘리그라피 아트를 사랑하는 커뮤니티로, ‘루리와 함께 손글씨 명언 필사 챌린지’의 줄임말이에요. 저희는 손글씨 명언 필사 챌린지에서 출발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영감을 나누는 커뮤니티로 확장되었어요. 현재는 단순한 필사를 넘어서 다양한 그림 도구를 이용한 스터디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전시명 ‘정원 : 지혜의 꽃을 피우다’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번 전시는 루리챌 10기 멤버들과 100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 탄생한 시와 명언 필사, 오일 파스텔화, 젠탱글을 사용한 드로잉 작품들의 집대성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메마른 땅 같았던 곳에 우리는 서로 다른 씨앗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온기와 애정으로 서로를 품으며, 결국 한 송이 꽃으로 성장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향기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끈끈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움을 담은 정원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함께 이 아름다운 순간을 기념해 주세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신 것 같아요. 이번 전시의 주제들을 선정하신 이유 혹은 담긴 의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나를 닮은 꽃’을 주제로 한 오일 파스텔화는 자아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과정을 아름답게 담아냅니다. 젠탱글과 시의 조화를 통한 필사 작품들은 개개인의 색채를 수채화로 배경화하여, 각자만의 이야기를 섬세하고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또한, 자유작은 100일간의 특강에서 배운 다양한 드로잉 기법과 그림 도구들을 활용하여 창조적 자유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작가들의 개성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시된 작품들을 보니 캘리그라피 작품 외에도 다양한 오일 파스텔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준비하고 기획하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번 전시를 위하여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성을 바탕으로 추가로 두 달의 작품 활동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은 각 작가의 섬세한 표현력과 창의성을 더욱 꽃피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정과 노력이 담긴 작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캘리그라피는 접하기 쉬운 듯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렵더라고요.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알려주신다면요? 또한 캘리그래피만의 매력을 소개해 주세요!

새벽 기상의 시작, 새벽의 고요 속, 취미로 시작한 캘리그래피는 제 삶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언을 필사하며 자신만의 생각을 담아내는 과정은 저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 듣고 싶었던 작은 토닥임 들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일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지난 슬픔과 외로움, 좌절은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힘을 주었어요. 그림을 그리며 글과 글씨에 마음을 담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캘리그래피는 남녀 불문하고 어떤 나이에 취미로 시작해도 멋진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갤러리상상언더' 전시 작가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조운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갤러리상상언더'는 예술과 시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죠. 이 갤러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일상 속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같아요.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예술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집니다. '갤러리상상언더'는 예술이 단순한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모든 이에게 일상에서 예술을 통한 새로운 영감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24.3.16.~4.9.
전시 '민화와 오디오 리엑티브 미디어 아트'

이경아 작가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이경아 작가의 '민화와 오디오 리엑티브 미디어 아트'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번 개인전의 주제가 '민화와 오디오 리엑티브 미디어 아트'인데요. 주제에 대한 설명과 전시회를 준비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10년 정도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2023년부터 XR 전시회를 시작으로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야경 사진전과 함께 선보인 오디오 리엑티브 미디어 아트의 후속편으로 신사임당의 초충도 등 한국적인 소재인 민화를 활용해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일반 대중들은 미디어 아트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친숙한 '민화'라는 볼거리와 함께 조금이나마 오디오 리엑티브 미디어 아트를 즐겨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을 가득히 작품으로 채우셨더라고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진을 10년 넘게 하면서 예술인 인증도 받았지만,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하던 중 몇 년 전부터 신사임당의 초충도와 서민적인 민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춘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춘천 봄내 미술인전과 모두의 미술' 등에 작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전시는 처음인 데다 '초충도'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함께 전시하기 위해 초충도 위주로 작은 작품을



준비하였지만 2024년 3월부터 전면 레일 와이어 전시 형태로 바뀐 전시회장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예전 작품들과 아기자기한 최근 작품들까지 다양하게 준비하다 보니 거의 64작품 정도 준비했네요. 전시회 준비기간도 3년 정도 되었네요.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미디어 아트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대중들을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초충도'를 비롯한 민화 작품들을 활용하고 즐거운 음악과 함께 연동한 미디어 아트로 조금은 쉽고 즐겁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예술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며 관람객들과 함께 즐기며 서로를 위해 기원하는 의미로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민화'는 조선시대의 민중 예술이면서 많은 해학과 기원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용머리 귀면과 해태도는 '수호신'으로, 모란은 부귀영화, 연꽃은 청렴함, 석류는 다산, 복숭아는 장수, 닭은 합격, 성공, 출세 등…. 나비는 장수를 의미하지만 꽃과 함께 그린 나비는 부부애를 뜻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호랑이는 권력을 나타내지만 주로 민화에서는 아주 귀엽고 재미나게 그리지요. 그렇듯 선조들은 민화 한점에도 해학과 복을 기원하는 좋은 의미를 담아왔습니다. 춘천 지하도상가를 찾으시고 전시회를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작품이 있지만, 이 작품만은 꼭 소개해 주고 싶다고 생각하신 작품이 있다면요?

미디어 아트의 주제가 '초충도'이다 보니 아무래도 초충도가 주된 작품인데요.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많이 알려진 편이며 하나하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꽃과 함께 그린 나비는 가정의 화목과 장수 등을 기원하고요. 수박이나 오이처럼 덩굴은 자손의 이어짐을 맨드라미는 출세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림 중 '꼬마 신랑'은 예스러운 추억을 담아서 재미나게 그려보았습니다. 또한 모란도는 민화의 기본이기도 하고 부귀영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까치호랑이도 민화에서는 권력과 국민을 의미하며 해학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춘천박물관에서 본 백자에 그려진 백화를 캔버스에 옮기며 나름대로 귀엽게 표현해 보았고 관람객들도 특이하게 여기시네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초충도를 비롯한 다양한 민화를 활용하여 음악과 연동하는 미디어 아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갤러리상상언더에서 매년 전시회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6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강릉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에서 다음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요. '생명과 음악이 가득한 강원의 평경'전에서는 강원도의 풍경을 담은 사진과 그림을 비롯해 오디오 리엑티브 미디어 아트 후속편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전시를 진행하시면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을 발견하신 게 있다면요?

봄내 소식지를 통해 알게 된 갤러리상상언더는 가끔 민화를 비롯해 다양한 전시회를 보러 오는 곳인데요. 2024년 장소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금 늦게 신청하게되었지만 멋진 장소에서 멋진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춘천 지하도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지하도상가를 찾는 다양한 춘천 시민분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고 가끔 서울 등 여행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의 중심에 있는 지하도상가라 다양한 관람객들이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분들이 찾는 문화와 예술의 쉼터로서의 지하도상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3.20.
3월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3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틈새콘서트 시즌2, 조운위크 봄,
조운동네 좋은소식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2

- 전시 ‘예뻐서, 봄’
- ‘조운동네 좋은소식 11호’ 발행
- 전시 ‘제8회 다은어린이집 그림 전시’
- 2024 조운위크 봄
- 전시 ‘제1회 이승호 개인전’
- 5월 월례회의
- 전시 ‘Abstract Time’
- 전시 ‘색에 차오르다’
- 2024 녹색교통 해커톤
- ‘조운동네 좋은소식 12호’ 발행
- 전시 ‘유영아 개인展’

24.4.6.~4.13.
전시 ‘예뻐서, 봄’

춘천민화연구회 / 조운웰컴센터

조운웰컴센터에서
제10회 춘천민화연구회의
정기회원전 ‘예뻐서, 봄’ 전시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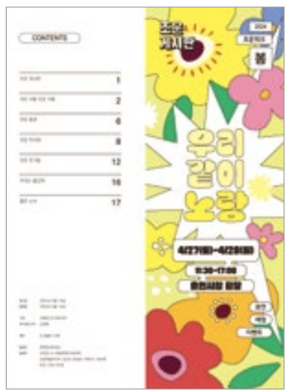




24.4.15.
‘조운동네 좋은소식 11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 〈조운동네 좋은소식〉 11호를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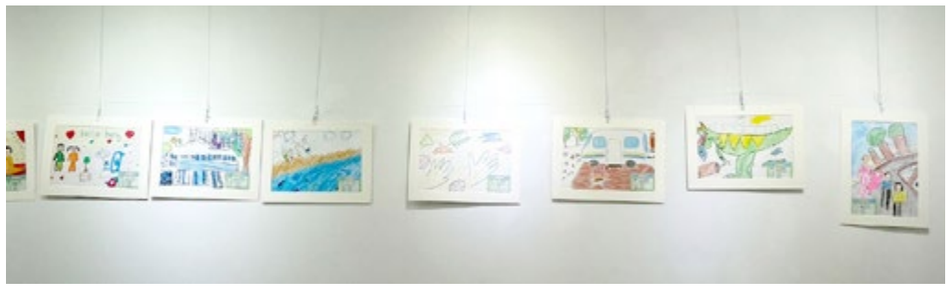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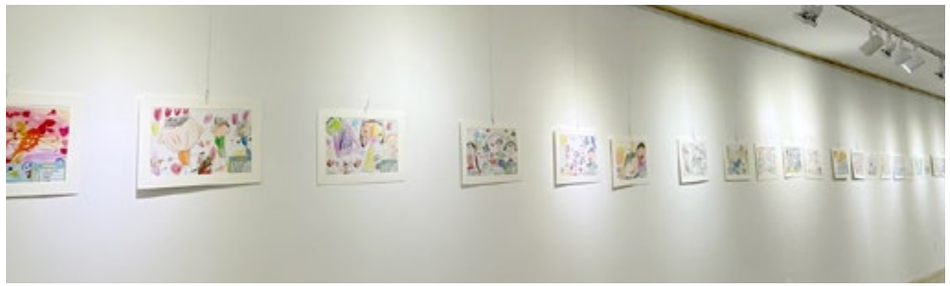
24.4.19.~4.29.
전시 ‘제8회 다은어린이집 그림 전시’

다은어린이집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다은어린이집의 단체전 ‘제8회 다은어린이집 그림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시장에 가보니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들로 전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전시를 진행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며 우리 아이들의 감성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결정하였고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했고, 작품들을 준비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60여 명의 아이들이 그림 전시에 참여했어요. 가정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준비기간은 3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점점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는 요즘 저출산 시대에 가족의 소중함과 아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되는 따스한 가족의 감성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출산 시대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작품이 되어 전시회까지 진행되는 경험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 작가님들의 반응들이 궁금해요! (더불어 부모님의 반응은요?)

가족과 함께 부모님들의 힐링 타임과 데이트 시간이 되었다는 전시회 관람평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 멋진 공간에 전시가 되어있어 너무 기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전시회라 다른 일반인분들은 많이 관람을 안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방명록을 확인하고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어르신 분들의 글귀가 많아 너무 감사했고 즐거운 산책 시간과 아이들의 그림을 감상하며 본인들도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언더만의 매력은 넓은 공간과 밝은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4.4.27.~4.28. 2024 조운위크 봄

2023년에 이은 시청광장 '조운위크' 시리즈로 봄날의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체험과 공연, 도시재생 미니게임 · 팝업, SNS 이벤트, 포토존 등이 진행되었다.











24.5.1.~5.14.
전시 ‘제1회 이승호 개인전’

이승호 작가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이승호 작가의
‘제1회 이승호 개인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전시의 주제가 ‘뜨락에 내려서다’인데요. 전시명에 담긴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

제가 6년 전에 공직에서 퇴직하고 친구의 권유로 한국화에 입문했는데, 그때는 한국화에 대하여 문외한이었어요. 그동안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림 공부에 열중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들이거든요. 어설픈 붓질로 그린 졸작이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렇게 미술계에 첫발을 내딛는 모습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뜰 아래로 내려서서 대문 밖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과 의미가 상통하는 것 같아서 주제를 ‘뜨락에 내려서다’라고 정했어요.

제1회 개인전인데요. 전시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와 준비하신 기간을 알려주신다면요?

한국화에 입문하여 2년 동안은 거의 습작 기간이었어요. 제대로 된 그림이 거의 없었는데, 3년 전부터 조금씩 작품을 완성하면서 각종 공모전과 전시회에 참여하다 보니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작품 수가 많아졌어요.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의 권유와 제 작품에 대한 많은 분들의 평가도 받고 싶어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전시회를 통해 보여주신 많은 작품들 중 하나만 꼽기는 어렵겠지만, 이 작품만은 꼭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태백산 오르는 옛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번 개인전 도록의 표지로도 사용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근무하게 된 지역이 태백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함께 태백산을 등반하곤 했지요. 그때 마주친 수백 년 된 주목들은 도시에서만 자란 저에게는 생경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아직도 그 감동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작품의 주요 소재로 표현해 보았지요. 이 작품은 크기가 50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큰데요, 올해 3월에 제41회 경인미술대전에서 특선으로 입상하기도 했어요.

전시장을 작품으로 빼곡히 전시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한국화는 색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다가 자세히 보면 작가님마다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더불어 한국화의 매력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작가마다 작품에서 느끼는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의 작품과 저의 작품도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누구의 작품인지 짐작이 가기도 하지요. 한국화는 우리 역사와 함께하며 조상의 강한 숨결이 느껴지는 예술입니다.

유화나 수채화 등과 같은 서양화와는 그림 재료부터 다릅니다. 한국화의 주요 재료는 먹과 한지인데 먹은 유연하지만 강하면서 한지에 촉촉하게 스며들고 번지는 특성이 있고, 한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재료들로 그려진 한국화는 우리 마음에 여유와 안정감, 상상력을 자극하지요. 다양하게 표현되는 붓질과 먹의 농담, 여유가 느껴지는 여백 등이 한국화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의 작품 주요 소재는 실경을 바탕으로 하는 산수화인데, 실제 풍경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서도 수묵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산의 명소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작품을 보신 관람객들이 저의 작품에서 편안하고 보기 좋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어느 작품이 가장 좋은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작품마다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즐길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또한 진행하시면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을 발견하셨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소속된 한국화 동아리인 예림회의 정기전시회를 갤러리상상언더에서 3회나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곳 전시장이 매우 익숙해서 망설이지 않고 대관을 신청했습니다.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라면 우선 전시장의 크기가 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기에는 적당합니다. 더구나 내부 공간도 새롭게 정비해서 깨끗하고 밝습니다. 전시장이 훌륭하다고 관람객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전시장의 위치가 지하도상가에 있어서, 상가에서 일을 보고 지나다가 누구나 부담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관람객도 많고,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예정입니다.



24.5.16.
5월 월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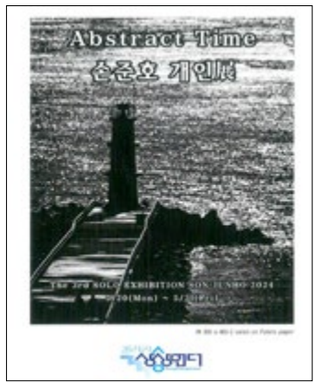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5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운위크 봄, 녹색교통 해커톤, 상상 한 여름,
조운동네 좋은소식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24.5.20.~5.31.
전시 ‘Abstract Time’

손준호 작가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손준호 작가의 ‘Abstract Time’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먼저 전시명인 ‘Abstract Time’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시간은 현실 형식적인 것에서 가상의 추상적인 것에 이르고, 시간 흐름의 의도적 변화로 현실이 추상적 세계가 됩니다. Abstract Time(추상적 시간)은 그동안 그렸던 그림과 사진을 디지털아트 기법으로 융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한 추상 작품과 함께 서정적 시를 탐미하는 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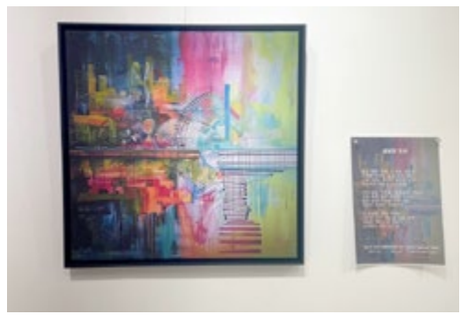
전시장에 방문했더니 한 개의 작품에 한 개의 시가 같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작품에 대한 설명이 같이 붙어있는 전시는 많이 봐왔었지만, 시는 처음이었고 새로웠어요! 작품에 대한 이해도 더 잘되는 거 같고요. ㅎㅎ 작가님이 직접 작성한 시 같던데, 이렇게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요?

작품명이 없을 전시에서 관람자는 무한의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작가의 창작 의도를 벗어날 수 있어 대부분의 작가는 작품명과 작가 노트를 작성합니다. 작품명을 알고서 작품을 감상하면, 작가가 느끼는 생각과 의도한 바가 와닿습니다. 그래서 관람자에게 작품에 대한 구체적 느낌을 전하려 창작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의미를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림과 사진,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실험적 융합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작품 중 전시를 보시는 분들께 “이 작품만은 소개해 드리고 싶다!”라는 작품을 한 개만 꼽아주신다면요?

강릉 여행 중 ‘구스타프 클림트의 빛의 시어터’ 전시에서 관람자의 포즈에 따라 추상적 미디어 아트로 실시간 변화하는 빛 공연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캔버스에 그리고 다시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후 디지털아트 기법으로 ‘나와 영원한 애인의 훙겨운 춤사위!’를 추상화하였습니다. 쉬!, 영원한 애인 누구?, 비밀.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보통은 작품을 먼저 보고 시를 읽어 보는데요. 시를 먼저 읽어보고, 작품을 보면서 관람자는 새롭게 작가의 생각을 읽으며 작가가 상상하는 추상적 시공간에 들어와 생각과 감정의 색채로 글과 작품의 무한 마법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연과 사람과 도시를 추상하면서 감상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또한 진행하시면서 발견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023년 '나도 스마트폰 예술사진가'와 '제8회 호반윤슬Art전' 전시하면서 생애 첫 공영방송 TV '춘천 강원도가 좋다' 프로그램에 인터뷰 한 기억과 이곳 지하도상가는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좋아요. 전문 전시장보다 갤러리상상언더가 훨씬 관람객이 많아 홍이 나서 2024년도 신청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관람객이 많아서요.

24.6.1.~6.15. 전시 '색에 차오르다'

호반윤슬ART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제10회 호반윤슬ART 단체전
'색에 차오르다' 전시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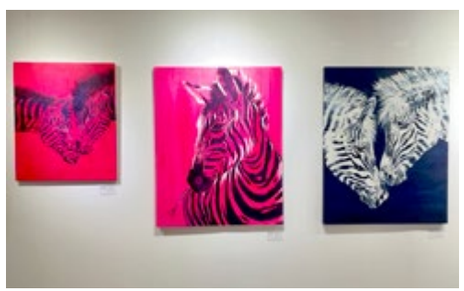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10회 호반윤슬ART전'인데요! 단체를 처음 들어본 시민분들께 단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6년부터 그림을 좋아하는 회원들이 모여 취미활동으로 시작하여 다수의 회원이 초대작가로, 개성 있는 화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2024년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호반'은 춘천을 대표하는 대명사죠. '윤슬'은 순수 우리말로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의미합니다. 우리 호반윤슬ART는 문화도시 춘천에서 윤슬처럼 잔잔한 예술혼을 일으키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예술인이었으면 합니다. 회원들은 미술 공모전에 참여하고 유아미술 지도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문 화가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0회의 전시를 진행하시면서 담긴 이야기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이번 전시는 '색에 차오르다'를 주제로 전시하였으며 강영순, 김종인, 김혜영, 민병관, 박상미, 손준호, 송선양, 유영아, 장미자, 전대경 등 총 10명의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색에 대한 탐미를 추구해 색의 매력과 감동을 안기고자 자연, 추억, 내면, 추상의 세션으로 전시를 구성하여 작가의 감성과 삶이 드러내는 색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표현을 탐구해 관객들에게 색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기획 전시입니다.
강영순 작가의 작품 '수줍음'은 주름진 얼굴의 한 노인을 작품에 배치해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이었지만, 웃을 땐 그 누구보다 수줍은 노인의 모습이 괜스레 마음을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김종인 작가의 작품 '사랑'은 엄마는 아이의 빛과 향기로, 아이는 엄마의 꿈과 희망으로, 엄마와 아이는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김혜영 작가의 작품 '또 다른 나 II'는 잠든 깊은 바다에서 한 쌍의 얼룩말의 슬픔과 기쁨, 고난과 극복 등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병관 작가의 작품 '정원 I '은 고향, 산과 들과 강과 초가의 뜰, 어린 시절 뛰놀던 앞마당을 무지개 같은 점표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박상미 작가의 작품 '여명'은 어두운 밤에 빛나는 꽃과 말, 꽃들이 피어나는 그 순간 아름다운 꿈의 자연을 표현했습니다. 손준호 작가의 작품 '그리움'은 초록과 노랑, 빨강과 흰색 등 다채로운 색이 조화를 이룬 한 얼굴을 형상화하고 그 위로 음표가 흘러 다니는데 그는 리듬에 따라 변하는 얼굴이 마치 하나의 예술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양 작가의 작품 '수려한 연꽃'은 고요한 호수에 피어난 연꽃, 펼쳐진 꽃잎을 곱고 순수하고 우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유영아 작가의 작품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하늘 안에 인생이라는 섬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을 엮어 놓은 삶을 돌담과 백합과 하늘에 의인화했습니다. 장미자 작가의 작품 '어느 날 문득'은 오래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그때 느꼈던 감동과 즐거움, 설렘을 가득 담아 작업했습니다.
전대경 작가의 작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를 돌아다녔던 때, 스트라스부르의 강물에서 인상을 받아 가족여행의 추억을 작품화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작품마다 색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느꼈는데요. 전시의 주제도 '색에 차오르다' 더라고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색에 차오르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나 대상이 특정 색상으로 가득 차거나 덮여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방안에 붉은 노을빛이 차올라서, 마치 방안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든 것처럼 보였다."와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거죠. 참여 작가분들은 자신만의 내면의 색을 형상화한 풍경, 정물, 인물, 비구상 등 흰 캔버스에 여러 번의 채색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시 중 만난, 작가님들의 화풍과 서양화만의 매력을 알려주신다면요?

손준호 작가: 사진과 미술,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Artist를 지향하고 있고, 서양화의 매력은 어린 시절 마당 또는 벽지에 낙서하듯 한 피카소(낙서장이)라면 누구나 쉽게 백색의 캔버스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낙서하듯 그려갈 수 있는 게 장점이며, 나, 스스로 색의 표현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은 누구나 피카소였죠?"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세요!
송선양 작가: 제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는

자연의 모습 특히 '꽃'을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여행을 다녀온 곳을 그리면서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서양화 중에서 유화는 서투른 그림부터 완성도가 높은 그림까지 다양하게 시작도 가능하여, 재료가 준비된다면 생각보다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영아 작가: 순수미술을 지향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만물을 풍부한 감정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제가 바라보는 서양화의 매력은 '다양성'입니다. 작가마다 다른 스타일과 개인의 의도에 따라 주제와 기법이 사용되고 풍부한 색감과 섬세한 묘사로 작가의 색감과 섬세한 묘사로 작가의 정서와 감성을 얹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미자 작가: 자연풍경을 주로 그리다, 이제는 여행지의 추억이 담긴 스토리 구성 작품으로 변화를 주고 있고, 서양화의 매력은 다른 장르보다 색이 주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크고 조색의 기쁨과 색의 아름다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네요. 그림 그리기 서툴어도 수정할 수 있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마무리하신 후 앞으로의 호반윤슬ART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호반윤슬ART는 매년 2회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하반기에는 갤러리툰에서 '색에 차오르다' 2차 전시(2024.11.26.~12.8)와 제10회, 제11회 전시 작품을 묶어 도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갤러리툰 전시는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 볼 수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갤러리 호반윤슬ART(지하도상가 마-27호)에서는 회원들의 릴레이 작품 개인전을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진행하시면서 발견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023년 '제8회 호반윤슬Art전' 전시를 하면서 이곳 지하도상가는 일반시민의 접근성이 좋아 관람객이 많고 우리 단체의 전시 규모와 딱 맞아 2024년도 신청했어요. 너무 좋아요. 관람객과 호흡하는 전시가 되어 기쁩니다.



24.6.5.~6.6.
2024 녹색교통 해커톤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
청년들이 모여 친환경 교통 체계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
'녹색교통 해커톤'이 진행되었다.







24.6.15.
‘조운동네 좋은소식 12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 〈조운동네 좋은소식〉 12호를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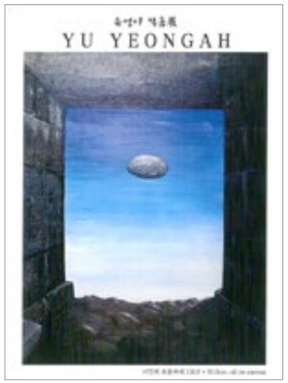




24.6.16.~6.23.
전시 ‘유영아 개인展’

유영아 작가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유영아 작가의 ‘유영아 개인展’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번 전시된 작품들에 자연 요소(나무, 숲, 과일 등)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시의 주제인 '시간의 흐름 속에'와 연관이 되어있는 걸까요? 주제에 담긴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마리아 유영아 작가입니다. 이번 개인전 주제인 '시간의 흐름 속에'는 인간의 삶과 일생을 그려냈습니다.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의 희노애락(喜怒哀樂)속 삶을 담았습니다. 식물도 인간과 같이 씨앗에서 싹을 피우고 풍성한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주고 그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고 마른 낙엽으로 돌아가듯이 피고 지는 순환과정에서 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숨 막히는 일상에 갇혀 살고 있지만 자연이 주는 풍성한 푸르름과 녹색의 향연으로 삶의 찌든 때를 씻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림이 주는 사색의 시간에서 삶을 리셋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중 "이 작품만은 소개해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작품을 한 개만 꼽아주신다면요?

다 애정과 애착이 가지만 작품 중 주제 희노애락은 집안의 키다리아저씨인 큰 오라버니를 그리며 작업하였습니다. 큰 오라버니와의 준비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을 때 가족들과 일몰을 보며 망설임 없이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집안의 무게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생을 떠난 오빠의 모습과 아낌없이 주고 가라앉는 일몰의 모습이란 마치 오라버니의 슬픈 뒷모습과 같았습니다.
메인 주제인 '시간의 흐름 속에' 작품은 현재의 시간은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주고 싶어서 작업하였습니다. 돌벽은 과거를 표현하였고 아래쪽 자갈밭은 현재, 시원한 하늘은 미래를 나타내었습니다. "현재는 돌벽에 갇혀있는 것과 같이 어둡고 답답하지만 미래만큼은 시원하게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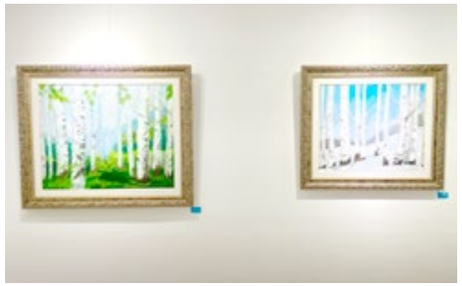


전시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는데요. 이번 전시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를 알려주신다면요?

이번 전시는 답답한 현실을 타파하고 노력하다 보면 좀 더 희망적인 시간이 오리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현실은 꽃길이 아니듯 칠흑처럼 어둠이 있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자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재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시간입니다. 벽 안은 현실, 벽 밖은 내가 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또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을 알려주신다면요?

지인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많은 이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4계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볍게 오셔서 누구나 가까이서 감상하고 사색하고 힐링하는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

- 전시 ‘지상만가展’
- 전시 ‘思困展’
- 7월 월례회의
- 전시 ‘봄시내천연염색전’
- ‘조운동네 좋은소식 13호’ 발행
- 전시 ‘2024 강원 기상기후 사진 순회 전시’
- 전시 ‘제10회 개인전-空間의 저편’
- 상상을 그리다
- 전시 ‘특종 · 추억의 사진전’
- 전시 ‘신승복 산수화전’

2024.7.2.~7.15.
전시 ‘지상만가展’

미술과사람들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미술과사람들의 단체전
‘지상만가展’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먼저 ‘미술과 사람들’ 단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술과사람들은 기존의 그룹전(동문전, 종교미술, 여성미술 등)과 다른 각기 개성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모여 차별화된 기획, 주제 등으로 새로운 시각과 비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기획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보다 많은 분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감동을 드리고자 늘 고심해 왔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마음으로 정원을 꾸미고, 저마다의 오브제를 업사이클링 하고 작년에는 오로지구로 여러분의 귀한 호응과 감동을 함께 했었지요. 이제 여기 지하도상가에 보금자리를 차리고 미술을 통해 창작 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드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처음 전시명을 듣고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상만가展’이라는 전시명(전시주제)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90년대 한국 영화 ‘지상만가’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지하도상가만 가 딴 데 가지마’라는 언어적인 유희, 재미있게 해석해서 지하도상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들의 작품 외에도 ‘나도 화가다’ 1기 수강생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나도 화가다’ 1기 수업 주제는 Fun한 아크릴아트(일러스트+팝아트)

1. 아크릴 일러스트(애니멀+Flower)
(4/7(일)~4/28(일) 제작 완료)
: 원하는 도안을 캔버스(5F)에 스케치 한 후, 도안의 큰 면에서 작은 면 채색하기, 2~3회 덧칠 후 세부 묘사하기, 수정 후 바니쉬로 코팅하여 마무리하기

2. 유명한 팝아트 따라 그리기
(5/12(일)~6/16(일) 제작 완료)
: 원하는 크기의 캔버스 선택 후 그리려는 도안에 먹지를 이용하여 따라 그리기, 색 입히고 라인 그린 후 바니쉬로 코팅하여 마무리하기

매주 일요일 3개월간 총 10회의 수업을 통해 아크릴 물감의 색채와 톤, 붓의 터치, 물감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해 두가지 주제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미술 작업을 2시간 작업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지만 해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놀라웠다는 반응과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안정적이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후기 등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활동이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미술 활동)으로 확대하여 미술에 흥미 있고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나눔의 활동이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을 통한 소통과 나눔의 시간 나도 화가다'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자리임을 수강생들의 작품에서 실감케 했습니다.

어반스케치
어반스케치의 경우 수강생들이 직접 촬영한 동네 곳곳의 건물이나 골목 등의 사진을 바탕으로 10주에 걸쳐 드로잉 및 채색까지 마치는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춘천의 모습과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관찰하게 됨으로써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화 창작스튜디오
탭을 이용하여 만화를 그리는 과정으로 본인이 스토리를 짜고 그림을 그리는 형식으로 10주에 걸쳐 작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미술과사람들 단체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나도 화가다 현재 2기 수업이 시작되었으며, 연말까지 교육사업 3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교육사업 결과물과 미술과사람들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하고 후기제작과 작품집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굿즈 제작도 기획 중입니다.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갤러리상상언더는 이전부터 작가들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삭막해 보이는 공간에 문화공간이 있다는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작품 혹은 굿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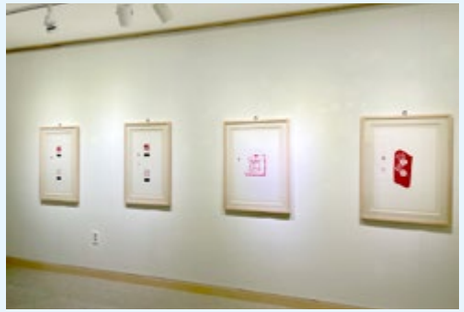
24.7.16.~7.30.
전시 '思因展'

김대영, 민선주, 신승복, 원용석 작가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김대영, 민선주, 신승복, 원용석 작가의
단체전 '思因展'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번 사인전의 주제는 '생명의 인연으로부터'인데요. 주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자연은 순환하며 생명을 키워냅니다. 봄에 눈을 뜬 생명들이 극성한 여름 태양과 구름과 비가 태고의 고요 속에서 산과 바위를 보듬어 울창한 숲을 기르고 생명의 젖줄로 대지를 흐릅니다. 순간이 모여 영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순환과 생명력의 순간에 주목합니다.

네 분이 함께하는 사인전은 두 번째인데요, 지난 전시(23년도)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요?

2024 전시는 2023 전시를 연결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려 의도한 전시입니다. 2023년 전시 제목은 '思仁展(어짊을 생각하는 전시)'으로 '仁者樂山(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에서 '仁(어짊)'을 필두로 하여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4의 전시 제목은 '思因展(인연을 생각하는 전시)'로 하여 '생명의 인연으로부터'라는 기치를 걸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생명체임을 자각하고 그 생명력이 태고의 우주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 각 작가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빚어지는 순환의 고리를 재인하게 하였습니다.

공통된 주제를 작가님마다 다르게 표현하셨는데요, 모두 느낌이 달라서 전시를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작가님마다 주로 표현하고자 했던 점이 있다면요?

김대영 작가는 춘천을 토대로 봉의산을 감싸는 주작과 현무, 그리고 봉의산 위를 날고 있는 자신의 자켓을 그림으로서 스스로 춘천 위를 날고 있다는 자각을 두었으며, 삼악산 케이블카를 주제로 하여 인간이 자연을 잠식하고 나아가 훼손하는 모습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작가의 의식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민선주 작가는 제주에 2개월간 머물면서 주로 차박을 하며 하루 종일 제주의 경치를 스케치하여 제주가 가지는 생명력과 그것의 위엄을 보이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풍광의 감상을 화선지에 쓰고 그 위에 그 형상을 그림으로써 글씨를 모두 읽어낼 수는 없지만 그림과 함께 그 안에 사연을 넣어 생명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신승복 작가는 자신이 무수히 산길을 발로 밟아 스케치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로 형상화하지 않고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함으로써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통섭하게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산과 물과 바위 그리고 수많은 나무와 식물들을 수묵으로 담아 누구도 독특하지 않지만, 모두가 주인공인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원용석 작가는 모든 작품을 해남에서 나는 납석(蠟石)에 전각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가려는 정신적인 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31cm 평면의 돌에 弘益人間(단군신화), 在世理化(단군신화), 法古創新(박지원), 公事無私(맹사성)의 4개 와당을 한꺼번에 새겨 찍음으로써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세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너나들이', '머드러기'를 전각하여 한글 조형성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길'은 현재 남북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희망하였습니다.

서양화, 한국화보다는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전각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전각(篆刻 - 인장 예술)은 대개 서예, 현대 캘리그라피, 수묵화, 동양화, 한국화, 문인화 등등에서 작가의 낙관을 확인하는 낙관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각은 다른 장르의 부속이 아닌 독립적인 장르로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전각의 과정은 우선 스케치북에 인고(印稿 - 인장 원고)를 그리는데, 작품 완성되었을 때 찍혀나온 결과를 예상하여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울에 비치거나 전사액으로 찍어서 평탄화한 전각석(주로 납석(蠟石)으로 전각칼로 새겨짐) 면에 거꾸로 그린 다음 전각도로 파낼 부분을 파냅니다. 그리고 다 새기면 인주나 인쇄잉크를 인면에 묻혀 찍어냅니다. 이때 글씨가 하얗게 나오는 음각은 '백문(白文 - 흰 글씨)'이라 하고, 글씨가 찍혀 붉게 나오는 양각은 '주문(朱文 - 붉은 글씨)'이라 합니다. 전각은 인장 자체를 작품으로 하지 않으며, 찍힌 인영(印影 - 찍힌 모습)을 작품으로 하므로 전시회에 전각석을 전시하지는 않으나 때로 감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돌 자체를 전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새겼는가 하는 것은 그 인장의 옆면에 칼로 직접 파서 새겨넣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전각 작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각 작품만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전업 작가는 극히 귀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작가님들의 향후 계획을 알려주세요!

'사인전'은 현재 3회째 진행되었으며 현재의 구성원 전시는 2023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의 전시를 통하여 현재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개성과 의도 그리고 지향성이 서로서로 아주 많이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향후도 모두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인전'의 '사'는 넷을 뜻하는 '四'가 아니고 '思(생각하다)'인 점에서 드러나듯이 반드시 4인이 하는 것은 아니며, 더 많은 작가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사인전'은 '순환'과 '생명'의 지향에 동의하는 어떠한 장르의 작가와도 손을 잡고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명동 지하도상가가 리모델링하여 '갤러리상상언더'공간을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으며, 주변의 예술가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호하는 전시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은 3년 전부터 많은 교류 작가들이 입주 또는 퇴거하였으며, 그들 역시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전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갤러리상상언더'는 다음과 같은 매력이 있다는 것을 작가들은 공감합니다.
첫째, 상가를 끼고 있어 다른 전시장에 비하여 관람객의 숫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둘째, 개인전과 그룹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다.
셋째, 대관료가 없으므로 다른 갤러리에 비하여 경제력이 취약한 춘천의 작가들에게 많은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상가의 모서리에 있으므로 오가는 인파의 눈에 띄기가 매우 쉬워 득의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섯째, 점차 많은 작가들이 선호하게 됨으로써 불과 2~3년 새 초반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전시가 유치되고 있어서 궁벽한 곳에 있다는 약점이 모두 해소되었다.
여섯째, 전시 기간을 1~2주를 허용함으로써 관심 있는 감상자들의 감상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다만 '갤러리상상언더'는 작가들에게 다소 아쉬운 점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이 지하에 있어 습기가 잘 제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습기는 전시 기간을 통하여 작품이 변질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작품을 관리하는 사람의 체온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습의 문제는 갤러리상상언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사인전'은 춘천 예단에 공개적인 그룹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것은 '갤러리상상언더'의 허용적이고 넉넉한 사고의 공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더 훌륭한 작가들을 초빙하고, 더 좋은 작품을 생산하여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전시하고 싶습니다. '사인전'의 무난하고 성공적인 전시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갤러리상상언더'에 감사를 전합니다.



24.7.17.
7월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7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상상을 그리다, 조운동네 좋은소식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24.8.1.~8.14.
전시 ‘봄시내천연염색전’

봄시내천연생활염색회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봄시내천연생활염색회의 단체전
‘봄시내천연염색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먼저 '봄시내천연염색회' 단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천연염색을 하며 주변의 식물 염재로 다양한 염색 기법을 연구하고 춘천의 곳곳에 있는 식물들을 채취하며 천연염색을 합니다. 중년의 아름다운 인생과 시간을 공감하며 서로 배려하는 단체입니다.

천연염료로 이용해서 다양한 색을 내는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작업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쑥, 치자, 메리골드, 커피, 밤껍질, 소나무껍질, 쪽 코치닐, 아선약, 오배자 등을 채취하고 건조 → 가공 → 끓이기 → 거르기 → 실크, 마, 울, 린넨, 레이온 섬유 담금(30수 이상) → 매염 처리 → 2차 염색 → 매염 처리 → 헹구기 → 건조 → 다림질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연 속의 식물, 가지 속의 색감은 매염제와 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연출되기도 합니다.

천을 염색한 작품들로 꾸며진 전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전시인데요. 어떻게 전시를 기획하시게 되셨나요? 또한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세상의 아름다운 색을 찾아내며 만들어가는 흥미를 느끼며 회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디스플레이를 기획하였고, 예쁜 전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작품(티셔츠, 스카프 등)을 만들어 멋진 패션생활로 의도하며 회원 간의 소통과 우정을 갖고자 합니다. 집안 이야기, 인생 나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전시였음 합니다.

22년도 이후 갤러리상상언더에서의 두 번째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신 기간을 알려주신다면요?

1년 동안 준비했고요. 4년간의 전시를 통해 자기만의 기법, 연구를 통해 색다른 이야기 천연염색을 꾸몄습니다.





천연염색 작업만의 매력을 소개해 주세요.

자연 친화적인 매력이 있으며 '색'이 주는 다채로운 멋과 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도치 못한 문양이 표현되었을 때 느끼는 황홀함과 멋짐에 매료됩니다. 4계절 두르는 스카프, 목도리의 매력과 패션의 완성으로는 '천연염색 스카프'이지요.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SNS, 봄내 소식지, 지하도상가에서 작업을 하며 신청하였습니다. 갤러리상상언더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관람하며 점차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동호회에는 유익한 갤러리로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춘천의 자랑거리인 것 같네요.

24.8.15.
'조운동네 좋은소식 13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 〈조운동네 좋은소식〉 13호를 발행하였다.









24.8.16.~8.30.
전시 ‘2024 강원 기상기후 사진 순회 전시’

춘천기상대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춘천기상대의 ‘2024 강원 기상기후 사진 순회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먼저,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이 ‘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진행된 공모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기상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기록함으로써,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상 · 기후 사진 ·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모하고 있으며,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 · 기후 현상(비 · 눈 · 번개 · 무지개 등)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 홍수 · 대설 · 태풍 · 지진 등) 등으로 이를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환경부 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합니다.

총 몇 개의 작품들과 몇 분의 작가님들이 함께하신 건가요?

이번 전시회에는 제41회 기상 · 기후 사진 ·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정국 님의 ‘얼음 속 한라산’ 등 공모전 수상작 7점과 입선작 30점 등 총 37점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 세계 기상의 날 그림대회 공모전」 입상작 9점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성의 증가로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 피해와 영향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상 · 기후의 환경 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상현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갤러리상상언더라는 공간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또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을 알려주신다면요?

조운동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갤러리상상언더는 춘천지하도상가를 방문하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춘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전시 공간으로 일상에서 예술을 통한 새로운 영감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24.9.1.~9.15.
전시 ‘제10회 개인전-空間의 저편’

서영림 작가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서영림 작가의 ‘제10회 개인전-空間의 저편’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먼저 이번 전시까지 10회 개인전인데요. 그동안(1회~10회)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처음 1회 전시를 할 때가 1992년으로 기억합니다. 벌써 어언 30여 년이 지났군요. 10회 개인전을 하며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꼈지요. 늘 외롭고 고독한 예술세계지만 더 많이 행복하고 싶었고 진정한 묵객이 되자고 생각했어요.

전시의 주제가 ‘空間(공간)의 저편’인데요, 전시명에 담긴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

공간의 저편은 유토피아를 뜻하지요. 첫째, 이상향 내가 머물고 싶은 또 다른 시공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지요. 둘째, 화흥 흥겨운 몸짓 자연이 춤추고 신나는 世上(세상)을 뛰어넘어서 멋지게 꿈꾸는 곳을 의미하지요.

전시된 많은 작품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하신 건가요? 전시를 준비하신 기간을 알려주신다면요?

총 전시 작품은 39작품으로 몇몇 작품은 2015년부터 제작하기도 했고 다수의 작품은 2023~2024년 사이에 제작 완성하였지요. 특히 동면 솔발작품은 최근 3개월 전에 완성했네요.





전시회를 통해 보여주신 많은 작품 중 하나만 꼽기는 어렵겠지만, 이 작품만은 꼭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동면솔밭(소울로스터리 카페) 그린 '솔' 작품입니다. 몹시도 더운 날 현장에서 드론을 띄우고 그렸습니다. 크기는 6m×1.5m의 중대형 작품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소나무의 의미가 많이 바뀌어 인간의 그늘막이 되었지요. 자연과 인간의 친화를 강조한 작품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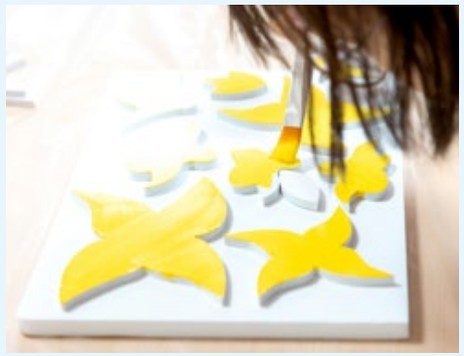


갤러리상상언더라는 공간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또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을 알려주신다면요?

3년 전 상상언더 창설 당시 개막전시에 왔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쭈욱 3년째 개인전 2회, 예림회전 3회 전시를 진행했지요. 매력은 춘천 중심에 자리한 것과 15일(2주간) 전시할 수 있고 모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24.9.7.~10.26.
상상을 그리다

지하도상가 계단에 내가 참여한
그림 작품이 전시될 기회.
총 21명의 학생과 함께한
춘천시 청소년 대상 벽화 사업
'상상을 그리다'가 진행되었다.









24.9.19.~9.22.
전시 ‘특종 · 추억의 사진전’

강일언론인회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강일언론인회의 단체전
‘특종 · 추억의 사진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진전을 진행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알려주신다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가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대한민국과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생생한 역사의 취재현장을 시민들과 시대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취재 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셨는데요. 전시된 사진 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담긴 사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983년 5월 5일 어린이날 유원지에서 휴일 스케치하다 비상 사이렌과 함께 춘천 캠프페이지에 불시착했던 중공 민항기. 탑승객 통역 관계로 도내 중국집 주방장들을 수십 명 긴급 소집했던 일. 1988년 11월 전두환, 이순자 부부 백담사 은둔생활. 1974년 6월 6일 현충일 박정희 대통령 일가족이 극비로 동양 최대의 사력댐인 소양강댐을 나들이 왔을 때 단독 취재해 특종을 받은 일과 그 후 취재기자에게 육영수 여사가 직접 감사 전화와 함께 보내준 귀중한 선물 등이 있네요.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들을 모으는 데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총 몇 개의 사진 작품들이 전시된 건가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의 사고 현장 사진과 이례적인 상황, 강일언론인회 회원들의 취재 현장에서 체험했거나 기념사진 중 추억이 서려 있는 사진 등을 포함해 약 60점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사진 중에는 강원일보 지면에 게재되어 우리들의 뇌리에서 잊혀가는 사진과 영동지방의 산불, 태풍으로 침수로 물바다가 됐던 강릉 시가지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지요.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2024년은 강원일보가 창간된 지 79주년 되는 해입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 중에는 향토문화 창달이 있지요. 일반시민들이 각박한 현실에서 각종 신문을 접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보도되는 사진을 뇌리에 각인시키고 더불어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2025년도 전시실에 대관 된다면 좋은 작품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갤러리상상언더라는 공간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또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을 알려주신다면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전시했던 지역 향토 작가들의 추천에 의해 대관 신청을 했어요. 지하도상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이점이 있고, 보통 일반 순수미술만 전시되는 점이 아쉬웠죠. 갤러리상상언더에서 다큐멘터리 보도사진은 전시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시도했습니다. 다만, 지하도상가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하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 전시를 진행하며 습기에 약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센터 측에서 응급조치로 제습기를 설치해 5일 간의 전시를 잘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24.9.23.~9.30.
전시 '신승복 산수화전'

신승복 작가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신승복 작가의 '신승복 산수화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년에 이어 24년도에도 개인전을 진행하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번 전시에 담은 주제를 알려주신다면요?

멋진 풍광을 저의 필로 담는 데만 염두에 뒀지, 특별한 주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풍경을 바라보면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양하게 있기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만 화가의 필과 묵을 접하며 자신의 삶과 길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시된 작품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하거나 구해진 사진을 변화시켜 제 산수화의 모습과 성정, 철학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평소 삶에서 성실, 소박, 절제 등을 늘 머리에 두고 생활하기에 화면에서 그것이 느껴지도록 그리려 했어요.







한국화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산수화는 풍경을 다루는 장르이기에 평소 자연을 많이 접하는 것이 장점이에요. 자연을 접하다 보면 생각의 정리와 마음이 차분해지며 정서적 안정과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먹과 필, 화선지에 그리기에 소박, 절제가 용이함 등이 매력이라 여깁니다.

전시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시대가 외면하는 산수화지만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연을 필묵으로 고집스럽게 그리며 소박, 조화 절제미를 느끼며 삶에서 그것이 필요함을 한 번쯤 나눈다면 영광이겠죠.



갤러리상상언더는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을 알려주세요.

타 전시를 관람하는 기회로 알게 되었고 매력은 가난한 화가라면 전시 비용의 절감과 일반 관람자가 많다고 느껴요. 감사합니다.

4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모집

전시 ‘우리 눈으로 본 춘천’

틈새콘서트 시즌3

‘조운동네 좋은소식 14호’ 발행

10월 월례회의

전시 ‘소양상미회 제3회 정기전’

전시 ‘칠보를 품은 동화 전’

전시 ‘제10회 예림회전’

웰컴 조운동네

공실 모집

‘조운동네 좋은소식 15호’ 발행

12월 월례회의

상상 한 겨울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24.10.2.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모집

2025년도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모집을 시작하였다.
대관비는 무료이며,
1인 1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24.10.7.~10.15.
전시 '우리 눈으로 본 춘천'

이혜린 작가 외 24인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이혜린 작가 외 24인의 단체전
'우리 눈으로 본 춘천'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먼저 전시를 진행하시게 된 이유를 알려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실 구성원은 절반이 발달장애인, 나머지 절반은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대 역시 일곱 살부터 여든네 살까지 다양합니다. 지난 몇 년간, 작업실 구성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더 알려 주고 싶어 춘천에서 사랑받는 여러 장소를 함께 그려 왔어요. 이를 시민들과 나누고 싶어 전시를 구상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총 몇 분의 작가님이 함께하였나요? 또한 작품을 준비한 기간을 알려주신다면요?

참여한 인원은 총 스물다섯 명입니다. 춘천 소재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몇 년 되었고 -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미리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 공간인 갤러리상상언더를 빌려 놓은 건 꼭 일 년째네요.





전시명이 '우리 눈으로 본 춘천'인데요, 전시명에 담긴 뜻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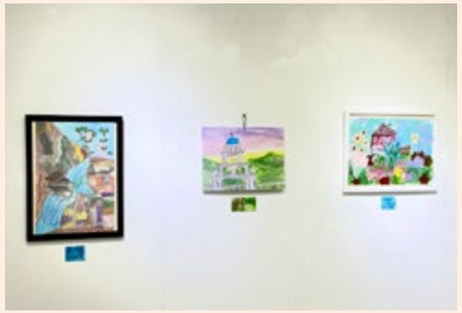
이번 전시를 위한 그림은 모두 춘천의 장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의 장소에는 구성원 각자의 기억과 추억이 담겨 있지요. 예를 들어, 태양이가 그린 벚꽃이 만개한 〈수자원공사〉는 뇌 병변 장애와 외곽 지역 거주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많이 받던 태양이가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만나 이곳, 저곳 다니며 드라이브할 때 인상 깊게 보았던 장소라고 해요. 이처럼 누구나 알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곳이지만 개별화된 기억을 통해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은 춘천 - 이를 표현하고 싶어 '우리 눈으로 본 춘천'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 참 아름다운 장소,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보고 사랑하는 법을 발달장애인 친구들에게 자주 배웁니다. 여러 제약 때문에 더 넓게, 많이 보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의 눈앞에 놓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참 순수하게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명동 나들이 갈 때면 청년 작가들, 평생교육의 예술인들 등 다양한 작가의 그림을 구경하느라 종종 들렀던 곳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관객이 찾는 시내 한복판에, 딱딱하거나 너무 말쑥하지 않고 오픈스튜디오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존재하는 장소여서 더 애정을 갖게 됩니다.





24.10.8.~12.5.
틈새콘서트 시즌3

보랏빛으로 물드는 가을 저녁, 퇴근길 · 하굣길에 힐링을 전하는 버스킹 프로그램 '틈새콘서트 시즌3'이 매주 화 · 수 · 목 저녁 6시에 진행되었다.









24.10.15.
'조운동네 좋은소식 14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 〈조운동네 좋은소식〉 14호를 발행하였다.









24.10.16.
10월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10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틈새콘서트 시즌3, 웰컴 조운동네, 상상 한 겨울,
갤러리상상언더 정기대관 모집, 상상을 그리다,
조운동네 좋은소식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24.10.17~10.30.
전시 '소양상미회 제3회 정기전'

소양상미회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소양상미회의 단체전
'소양상미회 제3회 정기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24.11.1.~11.15.
전시 ‘칠보를 품은 동화 전’

최지영 작가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최지영 작가의
‘칠보를 품은 동화 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전시명이 ‘칠보를 품은 동화 전’인데요. 전시명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칠보공예를 통해 동화들을 다시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보던 동화지만 다시 돌아보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동화를 통해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싶었고 힘들지만, 더 좋은 날들을 위해 힘을 내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칠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칠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매력을 알려주신다면요?

칠보는 전통공예로 한복에 잘 어울리는 장신구인 쌍가락지, 비녀, 노리개를 만들었던 공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 위에 돌가루를 올려 800도에 구워 작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질문은 “금방 구워지나요?”,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저의 답변은 “2~3분이면 가마에서 구워져 나옵니다”네요. 저에게 가장 큰 매력을 주었던 것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반짝이는 빛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지만, 가마에 구웠을 때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을 만드는 데 걸린 기간과 과정을 간단히 알려주신다면요?

제 그림의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림. 그림은 한국화 화판에 장지를 붙여서 한국화 물감으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민화를 그리는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를 붙이고 아교 반수부터 호분, 황토까지 바르고 원하는 색을 바르게 되는데 밑 작업만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화판이 클수록 그 시간은 길어집니다. 두 번째 칠보 작업은 디자인이 정해지면 톱질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동판을 잘라서 뒷판 작업 후 앞에 원하는 색을 올리고 은선이나 은박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만들게 됩니다. 칠보 작업 또한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1주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재미있는 전시를 생각했어요. 우스꽝스러운 전시가 아니라 그림을 보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는 전시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전시를 보면서 너무 재미있다고 웃으시며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잘 전달이 되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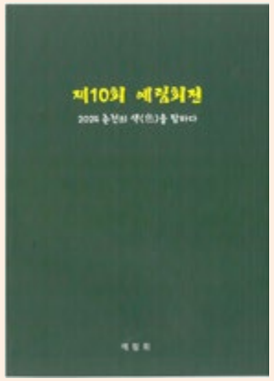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요?

작년 겨울 전시장 신청 블로그를 보고 무작정 신청했습니다. 그림을 무엇을 할지도 정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할 수 있을지도 감이 안 오는 상태였지만 전시하겠다는 마음에 갤러리 먼저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무료 전시장이라는 것이었고, 공방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왔다 갔다가 가능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24.11.16.~11.30.
전시 ‘제10회 예림회전’

예림회 / 지하도상가 갤러리상상언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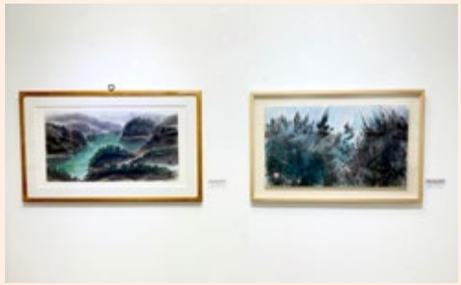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예림회의 단체전
‘제10회 예림회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10회 예림회전'인데요. 먼저 예림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림회는 황계 서영림 선생이 춘천의 공공기관에 개설된 한국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강생들과 작품을 전시하게 된 일을 계기로 2015년에 창립되었으며, 올해로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 관련 예술단체입니다. 대부분의 회원은 퇴직자, 자영업 종사자,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이 봄내미술인전 등 다양한 전시회에 출품하면서 연마한 기량을 뽐내고 있으며, 각종 공모전에서도 상위 입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명동 지하도상가 내에 「한국화 전람회장」을 개장하여, 회원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배움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개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부채 그리기, 소품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림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영림 선생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북부노인복지관, 후평3동 주민자치센터, 축산농협하나로마트 문화센터에 개설된 한국화 강좌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자 개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강의하므로 초보자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10회의 전시를 진행하시면서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올해는 예림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봄에 개최한 예림회 총회에서 10주년에 걸맞은 활동을 전개하자는 회원들의 다짐 속에서 분주하게 땀 흘린 한 해였습니다. 춘천은 도심을 감싸고 있는 삼악산과 대룡산 등 수많은 산과, 그 속에 잠겨 있는 의암호와 소양호, 춘천호 등 호수가 어우러진 훌륭한 경관을 지닌 호반의 도시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춘천의 색(色)을 탐하다'라는 주제로 춘천에서 살고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느낌을 바탕으로, 춘천의 풍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하를 수묵과 진한 담채로 화선지에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최되었던 어느 전시회보다도 가장 수준 높은 전시회라고 자부해 봅니다.

한국화만의 매력과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님들의 화풍에 대해 알려주신다면요?

한국화란 묵의 농담과 채색을 활용하여 그리는 그림이라고 형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에서는 작가의 눈에 비친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여백, 공간의 활용,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을 중시하면서 문인정신과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간추려서 그립니다. 그림의 대상은 주로 자연의 풍경, 나무, 꽃, 동물 등인데,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움과 평안함, 한국민의 정서와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림회원들은 전통적인 기법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감각과 주제를 가지고 개개인의 느낌대로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법으로 산과 계곡, 나무만 그리는 작가도 있고, 바위와 같은 자연물과 한옥과 같은 인공물을 디테일하게 화폭에 담아내는 작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을 보면 누구의 작품인지 짐작하곤 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마무리하신 후 앞으로의 예림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선 예림회 총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예림회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설 전람회장 운영, 춘천 시민 대상 무료 부채 그리기 체험행사, 야외 스케치 행사, 각종 전시회 및 공모전 출품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년도 행사 계획 수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제11회 예림회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창립 10년을 넘으면서 바야흐로 예림회도 중견 예술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별하여 중국, 일본 등 해외 교류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나요? 진행하시면서 발견한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갤러리상상언더에서 처음으로 예림회 전시회를 개최한 시기가 2021년 12월입니다. 그해 10월 중순경 지하도상가를 찾았다가 우연히 전시장을 발견하였고, 이를 계기로 올해까지 연속하여 네 번째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서 개최할 예정으로 벌써 사용 승인서도 받았습니다. 갤러리상상언더만의 매력이라면 우선 예림회 회원들의 40점 내외의 작품을 전시하기에 알맞은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림회에서 운영하는 상설 「한국화 전람회장」에서 가깝게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전시장의 위치가 지하도상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가에서 일을 보고 지나다가 누구나 부담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람객들의 수도 많고,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사실 춘천미술관이라든가 춘천문화예술회관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더구나, 사용료도 무료라서 예림회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단체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11.30.~12.15.
웰컴 조운동네

참여자는 조운웰컴센터에 대해 알아가고,
권역 상인과는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를 공유하는
문화 행사 '웰컴 조운동네'가
진행되었다.









24.12.2.~12.13.
공실 모집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공실에 대한 입주단체(인)를
모집하였다.









24.12.15.
‘조운동네 좋은소식 15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 〈조운동네 좋은소식〉
15호를 발행하였다.









24.12.18.
12월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1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2024년 추진 실적, 2025년 추진 계획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24.12.21.~12.22.
상상 한 겨울

포근한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상상 한 겨울'.
다채로운 전문 공연과 만들기 체험, 스탬프 투어,
조운동네의 2024년을 되돌아볼
전시(12/16~12/31) 등이 진행되었다.









24.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춘천지회 박순희 회장이 춘천 지하도상가 소공연장에서 시니어 모델 교육을 진행하였다.



2024년 원주 국제뷰티페스티벌에서 춘천지회 소속 윤재순 씨 최우수상, 성수미 씨 금상, 동선자 씨 동상을 수상하였다.



강릉 제2회 시니어모델 선발대회에서 춘천지회 소속 김재경 씨가 최우수상, 윤재순 씨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춘천지회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니어들이 모델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꿈과 열정을 실현할 수 있게 돕고 있어요. 2023년에 열린 제1회 강원도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서 '시니어 모델 퀸(심재희)'을 배출하는 쾌거도 있었죠. 또한 강원도 내 주요 행사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열릴 한지 축제와 조선왕조실록 행사, 그리고 제2회 시니어 산업박람회에서도 시니어 모델들이 활약할 예정이에요. 협회 차원에서 시니어 모델 활동이 취미를 넘어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올해 12월에는 모델들과 함께 파리와 밀라노를 가게 됐어요. 900km를 걷는 런웨이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모델의 교육이나 모집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많은 분들이 취미로 시작하지만, 체계적인 자격증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교육을 마치면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교육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수강생은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거쳐 선발된 수강생들은 분기별로 기수를 부여받는데요. 9월에 들어오면 '9월 기수'가 되어 함께 교육받는 식이에요. 오디션도 중요한 과정이어서 많은 수강생들이 오디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원주 한지축제 오디션에 참여해 15명이 선발되기도 했고요. 선발된 수강생들은 9월 26일 원주 한지축제의 런웨이에 서게 돼요.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지 모델 '퀸' 1명이 뽑히게 될 예정이에요.

지하도상가 소공연장은 어떤가요?

너무 좋죠. 정말 감사한 일인 게, 이렇게 시니어들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죠. 특히 시니어 모델들이 워킹을 연습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만한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희 모델협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1팀은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2팀은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나눠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마음 편히 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다른 팀들과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니까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신 춘천시청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조운동네 종은소식

2024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활동자료집

발행일	2024년 12월 23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갤러리상상언더 인터뷰	성현아(코디네이터)
제작 디자인	도서출판 산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강둑길 185 TEL.033-254-8912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TEL.033-250-4938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조운동네 문화가 숨쉬는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